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 :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이 해 경
한국사이버대 교육학과

신 현 숙
전남대 교육학과

이 경 성
성균관대 심리학과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자유반응조사, 전문가자문, 예비조사의 4단계 기초연구를 거쳤다. 연구1에서는 전국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청소년 3,18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중독, 가족관계문제, 섭식문제, 진로문제, 공격행동, 학업/주의 문제, 학교부적응,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비행, 충동/과다행동이 주요 요인으로 산출되었다. 이들 11개 요인은 청소년 문제행동 총 변량의 89%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71~.91에 해당하여 양호하였다. 또한 하위척도간 상호상관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75$ 로 양호하였다. 연구2에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규준 집단)과 948명의 문제 청소년 집단(타당도 집단)간 하위척도별 평균차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척도들에서 타당도 집단의 문제행동수준이 규준 집단보다 더 유의하게 높아서 본 척도의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본 평가척도와 K-YSR간 상관이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하여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문제행동 영역의 포괄성 및 자기보고형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문제행동, 행동평정척도, 행동평가, 자기보고

최근 한국 청소년들이 갖는 행동적 문제로는 크게 발달과업과 관련된 ‘학업 및 진로문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족, 또래, 교사와의 관계 문제’, 청소년기 주요 품행문제

로서 ‘비행과 공격적 행동’, 최근 청소년들의 생활습관에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인터넷중독과 섭식문제’가 청소년기 주요 문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예, 박영신, 김의철, 2003;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3; 한국청소년상

담원, 2000). 특히 청소년층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성매매, 인터넷관련 비행과 중독,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의 문제이다(이해경, 2001a). 이들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개입 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이미 발현되기 시작한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적용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유무와 심각한 정도를 판별하는 평가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다수의 행동평정척도들이 개발·실시되고 있다. 이들은 경험에 기초한 다축적 평가(multi-axial empirically based assessment)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아동·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행동의 심각한 정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평가자로 부모, 교사, 아동 및 청소년 자신을 포함하고 있다. 한 예로, Achenbach(1991a, 1991b, 1991c) 척도들은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번안·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Achenbach(1991a, 1991b)의 아동 및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들(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이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행동평정척도들은 전통적으로 정서·행동

장애를 진단, 분류하는데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APA, 1994)과 차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험적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다수의 문제행동 하위요인들에서 나타난 프로파일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양상과 심각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chenbach(1991a, 1991b, 1991c) 척도들과 오경자 등(1997, 2001) 척도들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공통으로 실시될 수 있는 문제행동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문제행동들을 포함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제들(예, 청소년 성매매, 집단괴롭힘)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척도들은 정서 및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적 진단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므로, 일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나 발달과정 중에 겪는 문제들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한편 외국에서는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집단을 유아, 아동, 청소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연령집단에 적합한 문제행동 문항들을 포함한 척도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Reynolds와 Kamphaus(1992)의 BASC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용 BASC가 한국판으로 표준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척도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독특한 문제들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문제나, 특히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실제 경험하고, 주로 호소하는 문제들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기초로 청소년기 문제행동 평가척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청

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기 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며, 우리나라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며, 일반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을 포함하는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 평가척도는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혹은 호소하는 문제들을 반영하는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과 실시는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선별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경향을 파악하여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이 아닌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반영하는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문제'의 개념

청소년 문제란 청소년들이 해결해야 할 어떤 어려움이나 청소년이 직면한 힘든 상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부족한 상태로 정의된다(Hoghghi, 1992,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에서 재인용). 그런데 청소년 문제의 어떤 측면을 주로 관찰하고자 하는지, 누가 문제 관찰자인지, 어떤 이론적 관점을 택하였는지에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다양하게 규정된다.

그러나 청소년 본인의 호소문제에 초점을 둘 때, 실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을 현실적으로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문제, 드러내는 행동, 현상 중심의 문제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청소년 문제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호택(1997)의 기준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보이는 어떤 행동특성이 평균보다 극히 결핍되어 있거나 혹은 과도하게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된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주관적 불편감으로 경험되며, 가족학교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주요 문제행동

청소년기 주요 문제행동은 청소년기 발달 과업과 관련된 학업 및 진로 문제, 청소년의 주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족 및 또래, 교사와의 관계 문제, 청소년기 주요 부적응 행동으로 드러나는 공격적 행동 및 비행, 그리고 청소년의 주요 생활습관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터넷 과다사용 및 중독, 섭식문제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0)의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학업 및 학교부적응, 진로, 가족, 대인관계, 비행, 생활습관 및 태도, 성격, 정신건강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들 가운데 학업 문제는 한국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거리로 간주되어 왔다. 학업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약물사용이나 가출 또는 폭력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양돈규, 2000). 따

라서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업문제는 다른 어떤 발달시기에서보다 신중하게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할 문제행동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직업적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진로 의사 결정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결국 진로발달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대화의광장, 1998). 구체적으로, 상담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미결정 및 갈등, 진로정보의 부족, 진로인식의 부족을 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한편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는 가족관계(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또래관계(동성친구와의 관계, 이성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로 구분된다(청소년 대화의광장, 1998). 청소년기 대인관계문제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정서적 안정, 비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청소년 대화의광장, 1996). 집단괴롭힘에 관한 최근 연구들(예, 김혜원, 이해경, 2001)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 3,802명 가운데 중학생의 61.8%, 고등학생의 42.3%가 집단괴롭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집단괴롭힘은 또래관계문제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래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교사와의 관계 또한 청소년의 적응 및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울소년감별소(1981)에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행청소년들의 약 1/3이 학교를 혐오하며, 약 2/3는 공부하기가 싫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를 싫어하거나 교사에게 무관심한 경우, 교사에게 자주 야단맞

는 경험에 있어서 모두 일반학생집단에 비하여 비행청소년집단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따라서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의 형성은 비행문제의 발생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가족문제는 부모-자녀간 관계문제, 부모간의 갈등 및 폭력, 결손 가정 및 재구성 가정의 적응문제 등을 포함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특히 부모-자녀간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비행과도 밀접히 관련되며(예, 양돈규, 성옥련, 1998; Allen, Moore, & Kupermine, 1996),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집단괴롭힘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예, 김혜원, 이해경, 2001; Olweus, 1978). 또한 가족간 갈등은 청소년기 정신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문제는 청소년기 적응과 발달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영역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와 비행은 양적으로는 전체 범죄 발생건수(1993년에서 1996년까지)의 10%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경찰청, 2002). 그러나 지위비행(예, 무단결석과 가출, 흡연, 음주,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하기) 등 소년 풍기 사범은 증가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최윤미 등, 1998). 보다 최근에는 약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조사(김성이 등, 1996)의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조사 시기 직전 1개월간 음주를 경험한 비율은 대략 25~35%, 흡연 경험률은 15~20%, 환각제 경험률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 절도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비행행동들이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학교폭력, 청소년 성매매, 인터넷 관련 비행과 범죄는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발생하기 시작한 심각한 비행문제이다. 실제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범죄의 대략 반수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다(중앙일보, 2001. 3. 26.).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 음란채팅,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도박 및 사기, 인터넷 과다사용 혹은 중독으로 인한 학교 무단결석 및 조퇴, 채팅을 통한 즉흥적인 성관계(번섹) 및 원조교제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김혜원, 2001; 조남근, 양돈규, 2001).

또한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증상이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김혜원, 2001)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약 1/3 이상이 불안이나 초조감 같은 급단현상을 겪으며, 내성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을 늘이거나 더 높은 강도로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인터넷 접속으로 인해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현실세계에서 대인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등 인터넷중독 증후군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중독과 인터넷 관련 비행이 우리나라 청소년층에서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청소년층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몰입 및 중독, 음란물 접촉 및 음란성 채팅,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해킹 및 바이러스의 유포, 또한 인터넷의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사람과의 동반자살 등 인터넷 관련 비행과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김혜원, 2001; 윤영민, 2000;

이해경, 2001, 2002a, 2002b; 조남근, 양돈규, 2001).

이외에 섭식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문제이다(중앙일보, 2001. 6. 15.). 섭식문제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가족과의 관계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신체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나 자기조절에서의 어려움이나, 신체상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는 섭식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김준기, 2002). 더구나 섭식문제를 갖는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우울감과 심리적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섭식문제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의 개발 동향

청소년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찰, 면담, 표준화검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행동평정척도(behavior rating scales)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행동을 관찰한 경험에 기초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객관적이며 시간-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문제행동의 사전판별과 임상적 진단평가를 실시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Knoff, 2002; McKim & Cowen, 1987).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다수의 행동평정척도들이 개발·실시되고 있다. 이들은 경험에 기초

한 다축적 평가(multi-axial empirically based assessment)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의 평가자로 부모, 교사, 청소년 자신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Achenbach(1991a)의 Child Behavior Checklist(CBCL)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오경자 등, 1997)와 Achenbach (1991b)의 Youth Self Report(YSR)를 번안하여 표준화한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오경자 등, 2001)가 실시되고 있다. 부모보고형 K-CBCL과 청소년 자기보고형 K-YSR은 모두 문제행동의 사전판별(screening)과 임상적 진단(clinical diagnosis)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평가도구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평가와 부모평가간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2003a, 2003b; Achenbach, Stephanie, McConaughy, & Howell, 1987)를 청소년 자기보고형의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청소년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처음 K-YSR의 제작 의도는 대부분 청소년들의 문제를 성인용 심리검사(예, MMPI)로 진단하는데서 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청소년용’척도를 개발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과 같은 특정 문화권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독특한 청소년 문제를 진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Achenbach(1991b)의 YSR에 추가하여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Reynolds와 Kamphaus (1992)의 BASC¹⁾는 자기보고척도(Self-Report of

Personality), 부모평정척도(Parent Rating Scales), 교사평정척도(Teacher Rating Scales), 행동관찰(Student Observation System), 발달사 기록(Structured Developmental History)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다. BASC SRP(Self-Report of Personality)는 자신의 감정과 성격에 관한 자기지각 또는 자기인식이 가능한 연령의 아동(8세~11세)과 청소년(12세~18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소년용 BASC-SRP의 하위척도 구성을 보면, 불안, 비전형성, 통제소재, 사회적 스트레스, 신체화,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자극추구, 우울, 부적절감, 부모와의 관계,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독립성 등 청소년기에 일반적인 문제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Brown과 Hammill(1990)이 개발한 행동 평정 프로파일(Behavior Rating Profile)은 6세 아동에서부터 18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실시된다. 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학생평정척도에 학교에 관한 문항, 가정에 관한 문항, 또래에 관한 문항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응 정도를 평가하는데 효율적이며 타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Achenbach(1991b)의 YSR을 번안·표준화한 K-YSR이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하는지, 청소년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적합한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외국의

1) 유아용 BASC는 이경숙 등(2003)에 의해 최근 한국판으로 번안·표준화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 2003).

평가도구를 활용하면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를 비교 문화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chenbach, Verhulst, Baron, & Akkerhuis, 1987). 그러나 한 문화권에서 수용되고 있는 사고방식을 다른 문화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이시킬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Reid, 1995).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YSR은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층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사이버 범죄, 집단괴롭힘, 성관련 비행, 청소년 성매매, 섭식문제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K-YSR은 다수의 임상집단의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구성된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인 YSR을 변안표준화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행동을 직접 평가하는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장면에서 심리적 장애나 부적응 문제를 진단하는 목적보다는, 일반 청소년들의 호소문제의 심각성 수준을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가도구는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조기개입 및 예방의 대책을 세우거나, 장애발생의 가능성을 보이는 고위험 청소년을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인 진단에 의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최근에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들이 많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 문항들로 청소년 자기보고형 평가척도를 구성하고, 둘째,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며, 셋째, 하위척도별 내적일치도와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며, 넷째, 각 하위척도별 점수가 일반 중·고등학생의 성별 및 학교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섯째, 각 하위척도별로 일반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정상군과 소년원, 정신과 병원, 청소년상담원 내담자들로 구성된 임상군의 평균을 비교하여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며, 여섯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보고형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와 K-YSR의 하위척도들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1 :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연구 1은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예비연구를 거쳐 청소년 자기보고형 검사지를 제작하고,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3,186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

예비연구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해서 문헌조사, 자유반응조사 및 전문가 자문, 예비조사의 4단계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이해경 등, 2003 참조). 첫 단계로 문헌조사에서는 청

표 2. 연구대상 청소년(전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		여		전체	
	n	%	n	%	n	%
학교급						
중	793	(27)	737	(25)	1530	(52)
고	719	(24)	671	(22)	1390	(47)
전체	1,512	(51)	1,408	(48)	2,920	(100)
거주지역						
서울	347	(11)	312	(10)	659	(22)
경기	322	(11)	381	(13)	703	(24)
강원	61	(2)	56	(1)	117	(4)
충남	160	(5)	166	(5)	326	(11)
경남	392	(13)	298	(10)	690	(23)
전남	180	(6)	195	(6)	375	(12)
전북	50	(1)	· ·		50	(1)
전체	1,512	(51)	1,408	(48)	2,920	(100)
생활수준						
상	91	(3)	66	(2)	157	(5)
중상	311	(10)	242	(8)	553	(19)
중	874	(30)	848	(29)	1722	(60)
중하	176	(6)	201	(7)	377	(13)
하	34	(1)	24	(0)	58	(2)
전체	1,486	(51)	1,381	(48)	2,867	(100)
학업성적						
상	166	(5)	155	(5)	320	(11)
중상	377	(13)	381	(13)	758	(26)
중	500	(17)	454	(15)	954	(32)
중하	328	(11)	311	(10)	639	(22)
하	127	(4)	93	(3)	220	(7)
전체	1,497	(51)	1,394	(48)	2,891	(100)

(주) 해당 정보 무기입의 경우, 표 안의 빈도산출에 포함 안됨.

소년 문제에 관련된 임상자료, 경험적 연구논

문, 기존의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를 검토하여, 청소년기에 대표적인 문제영역들(가족, 비행, 학업 및 학교부적응, 진로문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습관 및 태도, 기타)을 분류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2001년 11월에 B시에 위치한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청소년 299명, 학부모 73명,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자유반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에게 현재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고, 이 가운데 반응빈도가 높은 영역들을 선정하였다(이해경 등, 2003을 참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조사와 자유반응조사를 통해 선정된 문항들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예비조사지에 포함될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문항 283개를 선정하였다(표 1 참조).

예비조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438명에게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섭식문제, 인터넷중독, 주의산만/과다행동-충동성, 학업/학교부적응(학업수행곤란, 학교생활부적응), 진로문제(진로미결정, 진로의식부족), 공격성, 비행(지위비행, 범죄성 비행, 인터넷비행), 또래관계문제(사회적 위축, 또래따돌림), 교사와의 갈등, 가족관계문제(부모와의 갈등, 가족간 소원)의 10개 요인 별로 각

표 1. 예비조사지의 구성내용 및 영역별 문항 수

구 분	하위 영역 (문항 수)			
문제행동	- 섭식문제 (30)	- 인터넷중독 (25)	- 주의산만/과다행동	- 충동성 (25)
	- 학업관련문제 (31)	- 진로문제 (20)	- 공격행동 (21)	- 비행 (38)
	- 또래관계문제 (42)	- 교사관계문제 (19)	- 가족관계문제 (32)	
				총 283 문항
기타	- 개인 인적 사항 (7)	- 비밀관성척도 (10)	- 긍정왜곡척도(19)	
				총 36 문항
				총 319 문항

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154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연구대상

본검사 연구대상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교육통계(교육인적자원부, 2002)에 있는 성별, 중/고, 인문/실업계 학생비율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서울, 경기, 전라(광주포함), 충청(대전포함), 경상(울산, 부산포함)의 5개 지역을 기준으로 유층표집하였다. 이들 5개 지역에 배부된 검사지는 총 3,500부였고, 이 가운데 3,186부가 회수되어 약 91%의 회수율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5.1세(남 15.0세, 여 15.1세)였다.

회수된 자료 가운데 성별이나 학교급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266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재검사 연구대상 :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검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191명에게 본 검사를 실시한 2주 후에 다시 한번 실시하였다. 이들의 학교급별, 성별 분포를 보면 중학생 76명(남자47명, 여자29명)과 고등학생 89명(남자 34명, 여자 55명)이었고, 성별 및 중/고 학교급별 표시 항목에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26명이었다.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개인 인적 사항과 문제행동 증

후군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개인 인적 사항 문항들에서는 학교명, 이름, 성별, 연령, 가족구성, 가정생활수준,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자신의 휴학/전학/퇴학 경험, 그리고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경험 유무를 알아보았다. 이외에 10개의 하위척도 영역별로 각각 한 문항씩을 반복 제시하여, 피검자가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응답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비일관성척도’ (10 문항)를 구성하였다. 또한 피검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성을 재는 ‘공정왜곡척도’(19 문항)를 포함하였다. 문제행동 증후군을 측정하는 10개 하위척도의 내용 및 문항의 예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문제행동영역 : 예비조사(이해경 등, 2003)를 토대로 10개의 행동문제영역, 즉, 섭식문제, 인터넷중독, 주의산만/과다행동-충동성, 학업 및 학교부적응, 진로문제, 공격성, 비행,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갈등, 가족관계문제를 측정하는 총 15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자료로 문제행동의 각 영역별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섭식문제($\alpha=.91$), 인터넷중독($\alpha=.92$), 주의산만/과다행동-충동성(주의산만 $\alpha=.85$, 과다행동-충동성 $\alpha=.80$), 학업/학교부적응문제(학업수행곤란 $\alpha=.83$, 학교생활부적응 $\alpha=.76$), 진로문제(진로미결정 $\alpha=.89$, 진로의식부족 $\alpha=.82$), 공격행동($\alpha=.82$), 비행문제(지위비행 $\alpha=.80$, 범죄성 비행 $\alpha=.77$, 인터넷비행 $\alpha=.68$), 또래관계문제(사회적 위축 $\alpha=.82$, 또래따돌림 $\alpha=.71$), 교사관계문제($\alpha=.85$), 가족관계문제(부모와의갈등 $\alpha=.88$, 가족간소원 $\alpha=.82$). 이처럼 모든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가 양호하였다.

응답방법으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평가

표 3.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의 하위척도 내용 및 문항 예

하위 척도	척도 내용 및 문항 예
비일관성척도	· 동일문항에 대해 일관성있게 응답한 여부를 측정 예> 각 하위척도에서 1문항씩 반복측정.
긍정왜곡척도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성을 측정 예>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인터넷중독문제	·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부적응과 내성, 금단증상 예> 인터넷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가족관계문제	· 부모와의 갈등, 반항, 가출 등 예> 부모의 생각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된다.
섭식문제	· 섭식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무리한 다이어트 행동 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쉬지 않고 먹는다.
또래관계문제	· 또래와의 관계 위축,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관련 문항 예> 또래들(선후배 포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공격행동	· 일반적인 공격적 언어 및 행동,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관련 문항 예> 친구들을 집적거리거나 괴롭힌다.
비행	· 지위비행, 성비행, 인터넷 관련 비행 등 예>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띄운다.
진로문제	· 진로 의사결정곤란, 미성숙과 준비관련 문제 등 예>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 걱정하기 어렵다.
교사관계문제	· 교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갈등, 반항 예> 선생님과 사이가 나쁘다.
학교부적응	· 학업수행의 지조, 학교생활에서 규칙 위반 예>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어긴다.
주의산만/과다행동	· 주의산만, 충동적인 행동, 지나치게 행동이나 말이 많음 예>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하는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최근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문제행동을 겪었는지를 0 (전혀 그런 적이 없다)에서 3(항상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에서 평정하였다.

절 차

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전달된 평가지는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지도아래 집단으로 실시되었고, 실시된 자료는 학교단위별로 담임교사가 취합하여 본 연구자에게 우송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8.2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154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문항들로 하위척도를 재구성하고 하위척도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공통변량의 초기값을 중다상관자승으로 한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으며, 누적변량비율, scree검사, 고유치 및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기초 요인구조를 Varimax 방법으로 직각 회전한 후, 요인을 해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들을 우선적으로 제외시켰다. 각 요인별

표 4. 청소년 문제행동의 요인구조, 내적일치도 및 문항간 상관

요인명	문항수	α	설명변량비율	요인부하량	문항-요인 상관
1. 인터넷중독문제	14	.91	0.36	.40이상	.42~.74
2. 가족관계문제	15	.90	0.10	.36이상	.40~.74
3. 섭식문제	12	.90	0.09	.35이상	.39~.79
4. 진로문제	10	.88	0.07	.34이상	.38~.77
5. 또래관계문제	15	.84	0.06	.32이상	.31~.51
6. 공격행동	13	.85	0.05	.30이상	.34~.51
7. 교사관계문제	11	.87	0.04	.36이상	.43~.70
8. 학업/주의문제	12	.88	0.04	.33이상	.51~.68
9. 학교부적응	16	.83	0.04	.34이상	.44~.54
10. 비행	13	.81	0.03	.38이상	.32~.52
11. 충동/과다행동	6	.71	0.02	.29이상	.40~.51
총 합	132				

개별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각 요인별 총점과 개별 문항간 상관 등 문항양호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각 요인별 문항들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최종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영역들간의 상호 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요인분석

요인분석 결과에서,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이거나 두 요인에 모두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들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11개 요인의 132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설명변량이 높은 변인의 순서대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표 4).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89%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 측정된 문항의 내용에 따라(표 3참조) 1요인을 '인터넷중독문제'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2요

인은 '가족관계문제', 3요인은 '섭식문제', 4요인은 '진로문제', 5요인은 '또래관계문제', 6요인은 '공격행동', 7요인은 '교사관계문제', 8요인은 '학업/주의문제', 9요인은 '학교부적응', 10요인은 '비행', 11요인은 '충동/과다행동'요인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설명변량이 큰 요인은 인터넷 중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관계문제, 섭식문제, 진로문제, 또래관계문제, 공격행동, 교사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학교부적응비행, 충동/과다행동의 순서로 나타났다. 11개 문제행동의 요인별 개별문항들의 요인부하량, 공통분, 영역별 문제총점-개별문항간 상관, 문항양호도의 분석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 신뢰도

내적일치도

최종적으로 선정된 하위영역별 내적일치도를 Cronbach alpha(α)로 계산하였다(표 4). 하위척도별 내적일치도 계수는 .71에서 .91로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가장

표 5.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별 평균(SD)

	중 학교					고 등 학교					전 체		
	인문계		전체	인문계		전체	실업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인터넷중독	1.71(0.53)	1.62(0.53)	1.66(0.54)	1.76(0.55)	1.51(0.51)	1.63(0.55)	1.85(0.61)	1.62(0.48)	1.76(0.57)	1.78(0.57)	1.53(0.51)	1.66(0.56)	
가족관계문제	1.63(0.43)	1.72(0.54)	1.67(0.49)	1.77(0.47)	1.69(0.47)	1.73(0.47)	1.75(0.48)	1.80(0.47)	1.77(0.47)	1.77(0.47)	1.71(0.47)	1.74(0.47)	
섭식문제	1.42(0.42)	1.99(0.67)	1.69(0.62)	1.58(0.48)	2.13(0.64)	1.86(0.63)	1.56(0.50)	2.21(0.62)	1.82(0.64)	1.57(0.49)	2.15(0.64)	1.85(0.63)	
또래관계문제	1.71(0.56)	1.84(0.63)	1.77(0.60)	1.94(0.64)	1.89(0.65)	1.92(0.65)	1.97(0.62)	1.96(0.59)	1.97(0.61)	1.95(0.64)	1.91(0.64)	1.93(0.64)	
학업/주의문제	1.38(0.34)	1.38(0.35)	1.38(0.34)	1.49(0.38)	1.36(0.32)	1.43(0.36)	1.46(0.39)	1.36(0.31)	1.42(0.37)	1.48(0.38)	1.36(0.32)	1.42(0.36)	
진로문제	1.39(0.31)	1.33(0.31)	1.36(0.31)	1.37(0.32)	1.23(0.24)	1.30(0.29)	1.42(0.41)	1.33(0.28)	1.39(0.36)	1.38(0.35)	1.25(0.25)	1.32(0.31)	
공격행동	1.36(0.43)	1.42(0.43)	1.39(0.43)	1.49(0.42)	1.50(0.45)	1.49(0.43)	1.43(0.45)	1.49(0.45)	1.45(0.45)	1.47(0.43)	1.50(0.45)	1.48(0.44)	
교사관계문제	1.89(0.51)	1.97(0.53)	1.93(0.52)	2.13(0.55)	2.09(0.51)	2.11(0.53)	2.06(0.52)	2.06(0.47)	2.06(0.50)	2.11(0.54)	2.08(0.50)	2.10(0.52)	
비행	1.18(0.22)	1.20(0.28)	1.19(0.25)	1.32(0.35)	1.30(0.30)	1.31(0.33)	1.44(0.48)	1.57(0.41)	1.49(0.46)	1.36(0.40)	1.36(0.34)	1.36(0.37)	
학교부적응	1.04(0.11)	1.03(0.06)	1.03(0.09)	1.03(0.13)	1.01(0.06)	1.02(0.10)	1.12(0.32)	1.02(0.11)	1.08(0.26)	1.06(0.21)	1.01(0.07)	1.04(0.16)	
충동/과다행동	1.63(0.47)	1.77(0.49)	1.70(0.49)	1.69(0.47)	1.77(0.45)	1.73(0.46)	1.69(0.49)	1.84(0.48)	1.75(0.49)	1.69(0.48)	1.78(0.46)	1.74(0.47)	

높은 영역은 인터넷 중독이었다($\alpha=.91$). 또한 각 문제행동 영역에 소속된 개개 문항과 문제행동 영역별 총점수간 상관도 .31에서 .79로 나타나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본 검사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191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본 검사와 재검사 모두 우편으로 전달되었고, 담임 교사의 지도 하에 실시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4.8세(남 14.3세, 여 15.3세)로 전체 기준 집단의 평균 연령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는 $r=.75$ 로 양호하였다.

3. 청소년 문제행동척도의 기준

일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수준 즉, 청소년 문제행동척도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별(중/고), 성별 및 고등학교유형별(인문/실업)로 문제행동의 평균을 산출하였다(표 5).

먼저 연령 및 성별에 따라서 문제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급별(중/고) × 성별 문제행동의 평균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인터넷중독과 진로문제가 더 많았고,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섭식문제, 공격행동, 충동/과다행동의 수준이 더 높았다.

한편 인터넷중독, 가족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진로문제, 교사관계문제, 비행, 학교부적응영역에서 성별×중/고별 2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평균을 해석해보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의 문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았고, 이런 차이가 중학생 집단보다 고등학교 집단에서 더 증가하였다(중-남 $M=1.71$, 여 $M=1.62$, 고-남 $M=1.78$, 여 $M=1.53$), $F(1, 2916)=16.19, p<.001$. 또래관계문제는 고등학교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 비슷하게 문제가 많은 반면에 중학교에서는 비슷하게 문제가 적었다(중-남 $M=1.71$, 여 $M=1.84$, 고-남 $M=1.95$, 여 $M=1.91$), $F(1, 2916)=15.78, p<.001$. 또래관계문제영역과 같이 중/고와 남녀별 차이는 교사관계문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F(1, 2916)=7.44, p<.01$) 가족관계문제는 고등학교 남녀간에는 비슷하게 문제를 많이 갖는 반면에 중학교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문제가 더 적었다(중-남 $M=1.63$, 여 $M=1.72$, 고-남 $M=1.77$, 여 $M=1.71$), $F(1, 2916)=18.34, p<.001$. 학업/주의문제는 고등학교 남자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학업/주의문제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남 $M=1.38$, 여 $M=1.38$, 고-남 $M=1.48$, 여 $M=1.36$), $F(1, 2916) =22.41, p<.001$. 진로문제는 고등학교 여자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진로문제가 더 적었다(중-남 $M=1.39$, 여 $M=1.33$, 고-남 $M=1.38$, 여 $M=1.25$), $F(1, 2916)=10.29, p<.001$. 학교부적응에서는 고등학교 남자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학교부적응 문제가 더 많았다 (중-남 $M=1.04$, 여 $M=1.03$, 고-남 $M=1.06$, 여 $M=1.01$), $F(1, 2916) =6.98, p<.01$.

고등학생들의 경우, 인문/실업 계열에 따라서 문제행동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성별x인문/실업별 문제행동의 평균차이를 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이 차이를 보이는 문제행동 영역은 인터넷 중독, 진로문제, 비행, 학교부적응 영역이었다. 구체적으로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인터넷중독이나 진로문제, 비행, 학교부적응 경험이 더 많았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문제, 비행, 학교부적응 영역에서 성별x계열별(인문/실업) 2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가족관계문제, $F(1, 1386)=4.38, p<.05$, 비행 $F(1,1386)=10.57, p<.01$, 학교부적응 $F(1,1386)=13.60, p<.001$.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문제,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있어서 성별과 고등학교 계열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문제행동

증후군 영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문제를 많이 겪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관계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남자 청소년들에게 심각하였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심각한 가족관계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은 실업계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들보다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심각하였고, 학교부적응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심각하였다.

4. 하위 척도간 상관

하위 척도들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문제행동 영역간 상호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다른 모든 문제영역들은 서로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서, 한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수록 다른 영역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각 문제영역별로 상관계수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청소년들의 문제로 등장한 인터넷중독과 다른 영역의 상관관계를 보면, 인터넷중독 경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모든 문제영역에서 더 많은 문제를 보였으며, 다른 문제영역들에서보다 교사와의 관계문제($r=.55, p<.001$)에서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가족관계문제에서는 공격적 행동($r=.48, p<.001$)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래관계문제는 다른 문제영역보다도 학업/주의문제($r=.40, p<.001$)와 높은 상관을

표 6.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간 상관(r)

	A	B	C	D	E	F	G	H	I	J	K
인터넷중독(A)	-										
가족관계문제(B)	.36	-									
섭식문제(C)	.16	.24	-								
또래관계문제(D)	.36	.35	.25	-							
학업/주의문제(E)	.32	.38	.20	.40	-						
진로문제(F)	.37	.37	.13	.24	.26	-					
공격행동(G)	.32	.48	.26	.33	.35	.42	-				
교사관계문제(H)	.55	.46	.32	.53	.41	.36	.47	-			
비행(I)	.30	.38	.25	.26	.18	.52	.46	.44	-		
학교부적응(J)	.18	.17	.03*	.08	.18	.37	.19	.09	.32	-	
충동/과다행동(K)	.37	.31	.31	.33	.25	.46	.36	.44	.34	.13	-

* $p < .05$, 나머지는 $p < .001$

보였다. 주의/학업문제는 교사와의 관계문제 ($r=.41, p<.001$)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비행은 진로문제($r=.52, p<.001$)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공격적 행동문제는 교사와의 관계문제 ($r=.47, p<.001$), 비행($r=.46, p<.001$)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연구 2.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의 타당도

연구 2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의 변별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병원, 상담실을 내원하였거나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948명에게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표 7 참조). 이들 가운데 남자는 728명이었고, 여자

는 178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7세(남자평균 16.7세, 여자평균 16.5세)였다. 성별과 거주지를 표기하지 않은 42명의 자료도 타당도집단에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연구 2에서 실시한 측정도구는 청소년들이 작성하는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와 K-YSR,

표 7. 연구대상 청소년(전체)의 성별 및 지역별 빈도

	무응답	남자	여자	전체
지역	N (%)	N (%)	N (%)	N (%)
무응답	1 (0)	58 (6)	1 (0)	60 (6)
서울	10 (1)	115 (12)	38 (4)	163 (17)
경기	20 (2)	238 (25)	45 (4)	303 (31)
강원	2 (0)	44 (4)	3 (0)	49 (5)
충남	3 (0)	48 (5)	10 (1)	61 (6)
충북	· ·	20 (2)	3 (0)	23 (2)
경남	4 (0)	53 (5)	30 (3)	87 (9)
경북	· ·	67 (7)	13 (1)	80 (8)
전남	1 (0)	41 (4)	25 (2)	67 (7)
전북	1 (0)	44 (4)	10 (1)	55 (5)
전체	42 (4)	728 (76)	178 (18)	948(100)

그리고 상담자(교사 또는 심리평가자)가 작성

하는 별지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문제행동평가지 : 청소년 문제행동 검사지의 내용과 구성은 연구 1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지와 동일하였다.

K-YSR : Achenbach(1991b)의 YSR 척도를 표준화한 K-YSR(오경자 등, 2001)을 실시하였다. K-YSR에는 개인 인적 사항, 사회능력 척도,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K-YSR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 해당하는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문제, 공격성, 자해/정체감 영역(남자만 적용)의 112개의 문항들만을 선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각 영역별 문항들의 Cronbach alpha (α)계수는 .63~.85로 양호하였다(오경자 등, 2001). 이들 문항에 대해 0 (전혀 그런 경향이 없다) ~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까지 평정하게 하였다.

상담자(심리평가자 혹은 교사)작성용 별지 : 청소년들이 자기보고형 청소년문제행동평가지와 K-YSR 평가를 작성하고 나면, 교사(심리평가자 혹은 교사)들은 별지에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문제 혹은 의뢰사유를 15개 문제 영역들 중에서 표시(중복표시 가능)하게 하였다. 15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우울, ② 불안, ③ 정신병적 문제, ④ 섭식관련문제, ⑤ 신체화문제, ⑥ 인터넷중독문제, ⑦ 주의산만, ⑧ 학업관련문제, ⑨ 진로문제, ⑩ 공격성, ⑪ 비행, ⑫ 또래관계문제, ⑬ 교사와의 관계문제, ⑭ 가족관계문제, ⑮ 기타(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함).

규준 집단과 타당도 집단의 구분

연구 1의 본 연구에 참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 3,186명을 ‘규준 집단’으로, 연구 2의 타당도 연구에 참여한 소년원, 병원, 상담실을 내원한 948명의 청소년들을 ‘타당도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절 차

연구 2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 소년원, 병원, 상담실에 내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청소년들이 평가를 작성하는데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평가지의 전달과 반송은 모두 우편으로 이루어졌다. 평가지의 작성은 소년원의 경우에는 소년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의 지도 아래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상담실이나 병원의 경우에는 상담자(심리평가자)가 상담실(병원)을 내원한 청소년들 가운데 내원 당시 별지에 열거된 15개 문제행동 영역들 가운데 최소한 하나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시된 자료는 소년원, 병원, 상담실 단위별로 평가 실시자가 취합하여 본 연구자에게 우송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가 갖는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청소년들로 구성된 ‘규준 집단’과 소년원, 상담실, 병원에 내원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타당도 집단’간 문제행동 요인별로 평균차이를 변량분석하였다. 둘째, 본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공인타당도)

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2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작성한 본 척도의 하위척도와 K-YSR의 하위척도간 상호상관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1. 변별타당도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의 변별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문제영역별로 기준집단과 타당도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의 분량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문제행동 영역에서 기준집단과 타당도 집단간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중독문제, 가족관계문제, 섭식문제, 또래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진로문제, 공격행동, 교사관계문제, 비행, 학교부적응, 충동/과다행동에서 모두 기준집단보다 타당도집단의 문제 수준이 더 높았다.

한편 가족관계문제, 교사관계문제, 및 학교부적응 영역에서는 성별과 집단의 2원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2. 준거관련타당도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공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문제행동척도와 K-YSR척도의 각 하위척도간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9에서 보면 본 척도와 K-YSR의 하위척도간이 모두 $p < .001$ 에서 유의하였다. 하위척도간 상관계수들은 최저 .20에서 최고 .64의 범위에 속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청소년의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정서 및 행동장애 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장애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표 8.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별 기준집단과 타당도 집단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남			여			전체			성별(A)	집단(B)	A+B
	기준 MSD)	타당도 MSD)	전체 MSD)	기준 MSD)	타당도 MSD)	전체 MSD)	기준 MSD)	타당도 MSD)	전체 MSD)			
인터넷중독	1.74(0.55)	1.91(0.63)	1.79(0.58)	1.58(0.52)	1.84(0.70)	1.61(0.55)	1.66(0.55)	1.89(0.65)	1.71(0.57)	20.53***	64.93***	2.80+
가족관계문제	1.69(0.46)	1.76(0.46)	1.71(0.46)	1.72(0.51)	1.93(0.56)	1.74(0.52)	1.71(0.48)	1.80(0.49)	1.72(0.49)	17.67***	35.77***	9.96**
섭식문제	1.49(0.46)	1.61(0.55)	1.52(0.49)	2.06(0.66)	2.28(0.65)	2.09(0.66)	1.77(0.63)	1.77(0.64)	1.77(0.63)	522.27***	35.06***	2.24
또래관계문제	1.82(0.61)	1.89(0.57)	1.84(0.60)	1.87(0.63)	1.92(0.64)	1.88(0.64)	1.85(0.62)	1.90(0.59)	1.86(0.62)	222	3.95*	0.05
학업/주의문제	1.43(0.37)	1.53(0.47)	1.45(0.40)	1.37(0.33)	1.53(0.45)	1.39(0.35)	1.40(0.35)	1.53(0.46)	1.43(0.38)	1.71	51.86***	2.86+
진로문제	1.39(0.33)	1.62(0.47)	1.45(0.39)	1.29(0.29)	1.59(0.44)	1.33(0.32)	1.34(0.31)	1.61(0.46)	1.39(0.36)	14.52***	257.44***	3.50+
공격행동	1.41(0.43)	1.61(0.49)	1.47(0.45)	1.46(0.44)	1.69(0.48)	1.48(0.45)	1.43(0.44)	1.63(0.49)	1.47(0.45)	8.27**	104.08***	0.50
교사관계문제	1.99(0.53)	2.12(0.50)	2.03(0.53)	2.02(0.52)	2.25(0.58)	2.05(0.53)	2.01(0.53)	2.15(0.52)	2.04(0.53)	9.75**	51.65***	4.26*
비행	1.26(0.33)	2.19(0.59)	1.51(0.58)	1.28(0.32)	2.21(0.73)	1.38(0.49)	1.27(0.32)	2.19(0.63)	1.45(0.54)	1.19	2346.18***	0.11
학교부적응	1.05(0.16)	1.29(0.41)	1.11(0.27)	1.02(0.07)	1.20(0.22)	1.04(0.11)	1.04(0.13)	1.27(0.37)	1.08(0.22)	40.75***	485.31***	10.23**
충동/과다행동	1.66(0.48)	1.79(0.50)	1.69(0.49)	1.78(0.48)	1.87(0.47)	1.79(0.48)	1.72(0.48)	1.81(0.50)	1.73(0.48)	20.17***	25.04***	0.49

표 9.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와 K-YSR의 하위척도간 상관(*r*)

K-YSR \ 본검사	진로	학업/주의	또래관계	가족관계	교사관계	비행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공격행동	학교부적응	충동/과다	총문제점수
비행	.54	.35	.41	.39	.47	.58	.38	.34	.42	.46	.49	.59
공격성	.64	.32	.43	.37	.51	.48	.38	.41	.47	.41	.65	.61
사회적 위축	.24	.58	.41	.37	.39	.24	.30	.42	.36	.26	.40	.50
사회적 미성숙	.29	.64	.43	.35	.43	.21	.30	.38	.34	.32	.42	.50
주의집중 문제	.41	.48	.53	.41	.60	.39	.37	.41	.42	.28	.57	.61
신체증상	.30	.32	.25	.33	.29	.18	.20	.41	.33	.28	.38	.39
우울/불안	.36	.57	.46	.44	.48	.30	.32	.53	.42	.33	.54	.58
사고의 문제	.38	.47	.40	.39	.39	.24	.31	.39	.39	.41	.46	.50
자해/정체감 문제	.46	.54	.48	.50	.48	.33	.33	.49	.48	.42	.56	.61
K-YSR총문제점수	.55	.57	.53	.50	.57	.44	.43	.54	.52	.46	.66	.70
내재화문제총점	.36	.57	.45	.44	.46	.29	.33	.53	.43	.34	.52	.58
외현화문제총점	.65	.36	.46	.41	.54	.56	.41	.41	.49	.46	.64	.65

상관표 안의 모든 수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의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척도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것을 우리말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제작된 문제행동 평가척도들을 우리 문화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려는 시도들(예, 오경자 등, 1997; 오경자 등, 2001; 이경숙 등, 2003; 정현희, 2002)은 외국의 척도들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 척도들이 최근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잘 평가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가지고 평가척도를 제작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3,186명을 표준 집단으로 표

집하였으며, 소년원이나 정신과 병원, 혹은 상담실을 내원한 948명의 청소년을 타당도 집단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의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 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요인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행동 11개 요인(인터넷중독, 섭식문제, 가족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비행, 공격행동, 충동/과다행동)이 산출되었다. 이들 11개 문제행동 요인들은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보고된 청소년 문제의 대표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위척도간 상호상관이 모두 유의하여 본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양호하였으며, 표준 집단과 타당도 집단간 하위척도별 차이가 유의하여 변별타당도 또한 양호하였다. 본 척

도와 K-YSR간 상관계수가 문제행동 요인별로 모두 유의하여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위척도들의 내적일치도 계수(α)가 .71~.91의 범위에 속하여, 척도의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도 $r=.75$ 로 양호하였다.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보고 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중독 문제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 문제의 이해와 평가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인터넷중독과 다른 문제행동 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청소년 문제의 평가척도에 인터넷중독 문제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중독과 학교부적응 및 대인관계문제 발생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정경아, 한규석, 200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공격행동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해경, 2002a)의 연구결과에서 폭력게임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낮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인터넷중독 중에서도 폭력게임 중독이 비행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이해경, 2002a)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중독의 유형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척도는 인터넷중독의 임상적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사전 판별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

문에, 인터넷중독이라는 하나의 문제행동 영역에 대한 상세한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었다.

심리 및 행동 장애가 발달단계와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관점(오경자 등, 2001; Achenbach & Edelbrock, 1983)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성별과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계열(인문계, 실업계)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준 집단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인터넷중독과 진로문제가 심하였고,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섭식문제, 공격행동, 충동-과다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별의 상호작용 효과이었다. 가족관계문제는 중학교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반대 성보다 심각하였다. 그러나 또래관계문제와 교사와의 관계문제는 중학교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반대 성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학업/주의문제는 중학교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심각하였다. 비행은 고등학교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학교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가족관계문제,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있어서 성별과 고등학교 계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문제행동 증후군 영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인문

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문제를 많이 겪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관계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남자 청소년들에게 심각하였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심각한 가족관계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은 실업계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들보다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심각하였고, 학교부적응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심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에서, 대상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고등학교 계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비행과 같은 외현적 행동 문제는 성차가 분명하며, 특히 남자 집단에서 문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중·고등학교급에 따라서, 그리고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서 남녀 청소년이 겪는 문제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예방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개입(universal intervention)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적 예방에서는 대상 청소년의 성, 학교급, 고등학교 계열을 고려하는 개입전략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 청소년 집단(규준 집단)과 문제 청소년 집단(타당도 집단)간 문제행동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문제행동 영역에서 타당도

집단이 규준 집단에 비하여 문제 수준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이미 정서적 문제, 심리적 갈등, 혹은 비행문제로 소년원에 있거나 정신과 병원 또는 지역사회내 청소년 상담원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하여 일상적인 행동적응의 영역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고 사전에 판별할 목적으로 YSR이나 BASC와 같은 외국의 척도들을 번안·표준화하는 노력은 아동 및 청소년 문제의 빈도를 조사하는 기초 역학 조사나 장애의 진단을 위한 임상적 도구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문제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노력은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 평가척도가 K-YSR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은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이 최근에 많이 겪고 있는 문제행동들을 다각적으로 평가한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척도로 인터넷중독 문제를 평가할 수 있으며, 비행영역에는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격행동의 영역에는 집단괴롭힘 가해문제가, 또래관계문제 영역에는 집단괴롭힘 피해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족, 또래, 교사와의 관계 문제로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중·고등학교 시기에 특히 중요한 발달과제인 진로 문제와 학업문제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K-YSR과 달리, 본 척도

에서는 비행과 학교부적응 문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비행을 강도, 약물사용, 사이버 범죄와 같이 현행 형법상 제재를 받을 만한 일탈행동으로 규정한다면,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음주, 흡연, 중퇴 충동, 무단결석과 같은 학교부적응 행동을 별도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판별하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병원이나 임상기관 및 상담기관에 내원하는 임상집단을 진단 분류하는 목적이외에도 일반 청소년들의 문제를 문제발생 이전에 평가하여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 평가척도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상담 장면이나 심리적·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장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연구 초기단계에서 범주화한 청소년 문제 영역은 정서 및 사고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두 14개 영역이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최종 결과로 밝혀진 요인구조는 11개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문제를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청소년기 문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었다. 특히 우울, 불안, 정신병적 사고와 같은 심리 내적 문제들과 신체화 증상은 뚜렷한 요인으로 추출되지 못하였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들을 측정하

는 평가도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이해와 개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심리적 문제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 평가척도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외부 관찰자가 보기 어려운 정서적 문제나 생각, 태도 등 평가대상의 내면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보고형 행동 평가척도로 수집된 평가 자료에서도 응답자 반응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응답자가 고의로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 하거나(faking good) 더 나쁘게 보이려 하는(faking bad) 반응세트(response set)를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기보고형 평가척도의 개발에서도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생활하는 여러 환경 맥락에서 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청소년 자기보고형 척도와 더불어 부모보고형과 교사보고형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이 실제로 호소하는 문제에 관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부모보고형 척도와 교사보고형 척도를 함께 개발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평가자들로부터 동일 청소년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통합하여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후속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02). 경찰백서.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육통계.
- 김성이, 김경빈, 김소야자, 박명운, 주왕기, 김보애 (1996).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 및 예방대책. 한국청소년학회, 문화체육부.
- 김준기 (2002). 청소년의 Body Image와 식이장애.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2), 151-155.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그에 대한 원인분석-인터넷중독증세와 음란행위를 중심으로, 제 37회 청소년문제 연구 세미나 자료집 (pp. 19-6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혜원, 이해경 (2001).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탐색: 초, 중, 고등학생 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1), 183-210.
-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2003a). 청소년 행동문제의 청소년 평가와 교사 평가간 관계. 상담학연구, 4(1), 111-126.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2003b). 청소년 부적응 문제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평가: 요인구조의 비교와 예측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41(4), 1-23.
-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양돈규, 성옥련 (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1998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논문집. 375- 393. 한국심리학회.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윤영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 2차 정책포럼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 문제와 대책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 원호택 (1997). 이상심리학. 법문사.
-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 (2003).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K-ABC)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75-191.
- 이해경 (2001).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 이용에 있어서 창조적 행위와 일탈적 행위에 대한 심층인터뷰. 제 37회 청소년문제 연구 세미나 자료집, 66-11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이해경 (2002a).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55-80, 한국발달심리학회.
- 이해경 (2002b).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독 경험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예측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9(2), 165-190, 한국청소년학회.
-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3). 청소년 문제행동 평정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 자기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3), 105-132.
- 정경아, 한규석 (2001). 게임중독 청소년의 특성분석: 개입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연구. 2001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223 -228.
- 정현희 (2002). 한국판 교사용-아동평정척도(T-CR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2), 73-88.
- 조남근, 양돈규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 중앙일보 (2001. 3. 26.). 청소년의 인터넷 범죄.
- 중앙일보 (2001. 6. 15.). 다이어트 열풍.
- 청소년대화의광장 (1996). 청소년 비행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청소년대화의광장 (1998). 청소년 문제론.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최윤미, 박희경, 손영숙, 정명숙, 김혜원, 최해림,

- 백화정, 강순화, 이은경, 이규미, 이은순, 정현희 (1998). *현대청년심리학*. 학문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 개발연구 VI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Achenbach, T. M. (1991a).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1991b). *Manual for the youth self 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1991c). *Teacher's report form (TRF)*.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Stephanie, H., McConaughy, S. H., & Howell, C.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of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chenbach, T. M., Verhulst, F. C., Baron, G. D., & Akkerhuis, G. W. (1987). Epidemiological comparisons of American and Dutch children: I.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for ages 4 to 16.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317-325.
-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548-56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SM-IV)*. Washington D.C.: Author.
- Brown, L. & Hammill, D. (1990). *Behavior rating profile-2*. Austin, TX: Pro-Ed.
- Hoghighi, M. (1992). *Assessing child and adolescent disorders; A Practice manual*. London: Sage Publications.
- Knoff, H. M. (2002). Best practi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In A. Thomas & J. Grimes, *Best practices in school psychology-IV* (Vol. 2, pp. 1281-1302).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McKim, B. J., & Cowen, E. L. (1987). Multiperspective assessm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16, 370-381.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Wiley).
- Reid, R. (1995). Assessment of ADHD with culturally different groups: The use of behavioral rating scales. *School Psychology Review*, 24, 537-560.
- Reynolds, C. R., & Kamphaus, R. W. (1992).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Allen, J. P., Moore, C. M., & Kupermine, G. P. (1996). Development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dolescent deviance. In S. S.

부 록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에서 문제요인별 개별문항 요인부하량, 공통분, 문항총점-문항간 상관, 문항양호도

h^2 : 공통분, A: 총점-문항상관, B: 자기문항 제거시 a

영역/문항	요인	h^2	A	B	영역/문항	요인	h^2	A	B
인터넷중독(고유치 20.83, 설명변량비율 0.36)					공격행동(고유치 2.90, 설명변량비율 0.05)				
67. 인터넷을 하	0.71	0.61	0.74	0.90	286. 포래들(선후	0.60	0.41	0.51	0.83
7. 인터넷 하는	0.71	0.53	0.68	0.90	287. 포래들(선	0.59	0.40	0.50	0.83
22. 인터넷 때	0.70	0.59	0.71	0.90	101. 난	0.59	0.44	0.61	0.82
52. 인터넷을	0.67	0.57	0.70	0.90	116. 포래들(위험하	0.49	0.33	0.54	0.82
37. 포래들(포래들	0.66	0.49	0.66	0.90	131. 포래들(포래들	0.48	0.35	0.55	0.82
157. 포래들(포래들	0.64	0.52	0.68	0.90	41. 포래들(포래들	0.48	0.32	0.50	0.83
185. 포래들(포래들	0.64	0.47	0.64	0.90	146. 포래들(포래들	0.47	0.35	0.54	0.82
82. 인터넷을 하	0.60	0.47	0.61	0.90	189. 사람들과 싸	0.43	0.35	0.54	0.82
200. 인터넷을 하	0.56	0.43	0.57	0.91	58. 포래들과 말	0.41	0.25	0.46	0.83
142. 인터넷을 하	0.56	0.38	0.56	0.91	175. 상대방이	0.41	0.31	0.50	0.83
97. 포래들(포래들	0.56	0.37	0.57	0.91	161. 심한 욕이나	0.39	0.36	0.48	0.83
223. 포래들(포래들	0.55	0.41	0.58	0.90	86. 사람이나	0.34	0.21	0.42	0.83
171. 인터넷을 하	0.52	0.41	0.57	0.91	11. 포래들을	0.30	0.25	0.34	0.84
231. 인터넷을 하	0.40	0.29	0.42	0.91	고사관계문제(고유치 2.44, 설명변량비율 0.04)				
가족관계(고유치 5.91, 설명변량비율 0.10)					192. 선생님과 사	0.71	0.59	0.70	0.84
105. 부모와 생	0.73	0.62	0.74	0.87	89. 선생님과	0.71	0.63	0.71	0.84
253. 우리 가족	0.71	0.62	0.72	0.87	164. 선생님과	0.63	0.57	0.69	0.84
60. 부모는 내	0.71	0.58	0.70	0.87	149. 선생님과	0.59	0.53	0.67	0.84
267. 우리 가족	0.68	0.56	0.70	0.88	59. 선생님과	0.59	0.43	0.56	0.85
193. 부모와 사	0.66	0.56	0.68	0.88	74. 선생님과	0.59	0.41	0.55	0.85
30. 부모는 나	0.64	0.50	0.66	0.88	178. 선생님과	0.54	0.40	0.55	0.85
135. 부모와 나	0.60	0.50	0.62	0.88	134. 선생님과	0.45	0.33	0.52	0.85
75. 부모님과	0.59	0.42	0.59	0.88	104. 선생님과	0.39	0.34	0.47	0.86
150. 부모가 내	0.53	0.37	0.53	0.88	119. 선생님과	0.36	0.26	0.43	0.86
263. 우리 가족	0.50	0.32	0.51	0.88	29. 선생님과	0.36	0.28	0.43	0.86
258. 우리 가족	0.44	0.29	0.43	0.89	주의/학업문제(고유치 2.30, 설명변량비율 0.04)				
273. 우리 가족	0.42	0.26	0.47	0.88	114. 공부 안 해	0.62	0.58	0.68	0.86
270. 우리 가족	0.41	0.27	0.40	0.89	9. 학교에서 배	0.62	0.49	0.62	0.86
15. 부모에게	0.40	0.31	0.45	0.89	24. 숙제를 하	0.61	0.48	0.60	0.86
45. 부모에게	0.36	0.29	0.40	0.89	23. 주의산만	0.55	0.48	0.62	0.86
신식문제(고유치 5.08, 설명변량비율 0.09)					39. 특별보통	0.53	0.39	0.50	0.87
50. 날씬하지	0.83	0.71	0.79	0.88	83. 정신건강	0.45	0.43	0.59	0.87
5. 다이어트	0.82	0.69	0.76	0.88	113. 과체중	0.45	0.41	0.59	0.87
20. 체중이 늘	0.81	0.68	0.77	0.88	144. 학교공부	0.45	0.48	0.61	0.86
110. 살 빼려고	0.71	0.53	0.65	0.89	8. 쉽게 주의	0.40	0.34	0.47	0.87
35. 내 몸매	0.67	0.51	0.68	0.88	143. 대하나 지	0.36	0.41	0.53	0.87
183. 음식이 마	0.66	0.47	0.65	0.88	68. 하던 일	0.33	0.36	0.51	0.87
95. 만이 마	0.61	0.41	0.60	0.89	98. 세부적인	0.32	0.34	0.51	0.87
140. 자신의 나	0.60	0.40	0.58	0.89	학교부적응(고유치 1.96, 설명변량비율 0.03)				
155. 체중이	0.57	0.37	0.52	0.89	12. 눈을 마	0.58	0.44	0.54	0.80
169. 체중이	0.48	0.32	0.50	0.89	57. 미성년자	0.57	0.41	0.54	0.80
65. (여자인	0.44	0.26	0.46	0.90	205. 무단탈	0.54	0.41	0.52	0.80
125. 음식의	0.35	0.26	0.39	0.90	27. 담배를	0.54	0.38	0.49	0.80
진로문제(고유치 4.10, 설명변량비율 0.07)					187. 공부하기	0.53	0.38	0.56	0.80
100. 어떤 진	0.80	0.69	0.77	0.85	173. 학교에	0.50	0.38	0.55	0.80
115. 어떤 진	0.78	0.69	0.77	0.85	87. 아무 말	0.49	0.33	0.46	0.81
188. 나의 장	0.74	0.64	0.73	0.86	102. 학교	0.43	0.26	0.51	0.80
160. 앞의	0.72	0.59	0.71	0.86	132. 학교에서	0.36	0.38	0.46	0.81
174. 내가 잘	0.57	0.53	0.62	0.87	72. 수업을	0.35	0.18	0.36	0.81
85. 흥미가	0.54	0.36	0.56	0.87	202. 학교를	0.34	0.34	0.44	0.81
70. 누군가	0.50	0.31	0.53	0.87	비행(고유치 1.51, 설명변량비율 0.03)				
25. 차례에	0.45	0.30	0.47	0.88	281. 인터넷	0.62	0.41	0.52	0.77
10. 진로를	0.43	0.28	0.48	0.88	190. 포래들	0.56	0.38	0.46	0.76
130. 진로를	0.34	0.20	0.38	0.88	283. 인터넷	0.56	0.33	0.53	0.76
포래관계문제(고유치 3.42, 설명변량비율 0.06)					246. 원치	0.55	0.34	0.44	0.77
13. 포래들과	0.61	0.40	0.51	0.81	234. 소매치기	0.54	0.21	0.52	0.76
163. 친구가	0.60	0.43	0.53	0.81	218. 불량	0.46	0.31	0.44	0.76
148. 내가	0.59	0.42	0.56	0.81	256. (여자의	0.43	0.19	0.39	0.77
73. 포래들	0.58	0.40	0.57	0.81	274. 다른	0.41	0.21	0.42	0.77
133. 포래들과	0.58	0.41	0.55	0.81	268. 다른	0.40	0.22	0.43	0.77
118. 포래들과	0.52	0.36	0.53	0.81	26. 폭력	0.38	0.20	0.38	0.77
177. 포래들과	0.51	0.38	0.46	0.82	271. 인터넷	0.38	0.15	0.39	0.77
103. 속마음을	0.43	0.25	0.41	0.82	240. 남을	0.37	0.17	0.35	0.77
257. 포래들	0.40	0.27	0.35	0.82	261. (여자의	0.37	0.15	0.32	0.77
291. 이성친	0.39	0.41	0.48	0.81	충동/과다행동(고유치 1.35, 설명변량비율 0.02)				
252. 어떤	0.39	0.26	0.37	0.82	250. 질 사이	0.44	0.32	0.51	0.64
290. 이성친	0.38	0.39	0.45	0.82	201. 남들이	0.40	0.33	0.47	0.66
278. 포래들	0.36	0.24	0.34	0.82	245. 쉬는	0.40	0.33	0.45	0.66
292. 이성친	0.33	0.30	0.41	0.82	186. 질문이	0.36	0.23	0.39	0.68
266. 포래들	0.32	0.24	0.31	0.82	255. 차를	0.30	0.30	0.43	0.67
					239. 앉거나	0.29	0.26	0.40	0.68

Development of a Self-Report Form of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ating Scale : Tests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Haegyong Lee
Dept. of Education
Korea Cyber Univ

Hyeonsook Shin
Dep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Kyungseong Lee
Dep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elf-report form of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ating scale and to tes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Items were selected from literature review, free-response surveys with adolescents, parents and teachers, consultation with experts in adolescent development and problems, and a pilot study. Study 1 was conducted to administer a preliminary scale to 3,186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ttendi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in Korea. Exploratory factor analyses yielded 11 factors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i.e., internet addiction, eating problems, delinquency, aggression, learning/attention problems, school maladjustment, career problems, family relations, peer relations, relations with teachers, impulsivity/hyperactivity). The 11 factors accounted for 89% of the total variance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of the 11 subscales ranged from .71 to .91. The 2-week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r=.75$. Inter-correlations between the subscales were all significant. In study 2, the validity of the scale was examined. Mean differences in each subscale between the normative group and the validation group(consisting of 948 adolescents with problems) were all significant. The levels of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validation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normative one in all subscales. In addition, correlations between this scale and the K-YSR were significant in all of the

11 subscales. Thus, both discriminant and concurrent validities of this scale were found to be good. The results imply that it be necessary to develop an adolescent behavior problem rating scale consisting of items representative of recent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self-report form of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ating scale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adolescent problem behavior, behavior rating scale, behavior assessment, self-report

КСІ